

[미디어·음식료]

크~ 보는 맛이 있네

장지혜 음식료·미디어 02-709-2336 / jihye.j@ds-sec.co.kr | 김대성 연구원 02-709-2665 / rlarla6019@ds-sec.co.kr

2025.04.07

KBO리그, 역대급 흥행을 기록한 24년과 비교해도 25년 관중 수 +24% 증가 중

지난해부터 KBO 리그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24년 총 관중 수 1,088만명으로 리그 최초 천만 관중을 돌파했고 25년은 경기당 평균 관중 수가 전년보다도 24% 증가한 1.7만명을 기록 중이다. 이대로라면 25년 또 한번 역대급 흥행 기록을 세울 것이다. 이는 프로 야구 팬층이 MZ세대와 여성팬으로 확장된 결과로 1)팬데믹 이후 야외 활동 선호 증가, 2)야구 관람을 가성비 높은 여가 활동으로 인식, 3)응원 문화가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한편 대표적인 여가 활동이었던 영화 관람은 상대적으로 더욱 저조한데 25년 1~3월 합산 관객 수는 2,081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3% 감소했다.

KBO 수혜주 분석: CJ ENM, SPC삼립, SOOP

KBO 인기 증가의 수혜주는 CJ ENM, SPC삼립, SOOP이다. CJ ENM은 3년간(2024~2026) 총 1,350억원(연평균 450억원)에 KBO 리그 유무선 중계방송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티빙의 MAU는 24년 3월 690만명에서 10월 809만명으로 증가했다. 24년 10월 KBO 리그가 종료되고 25년 2월 네이버 멤버십도 종료되며 MAU가 680만명까지 하락했지만 3월 KBO 개막과 함께 다시 700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리그가 진행될수록 MAU 증가, 광고 수익 창출까지 시너지가 확대될 것이며 계정 공유 제한, 웨이브 합병, 해외 진출까지 맞물려 25년 실적 모멘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웨이브와 해외 합병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당사의 25년 티빙 실적 전망치는 매출액 4,834억원(+11% YoY), 영업이익 -270억원(적자축소 443억원 YoY)이다. 또한 KBO와 협업해 '크보빵'을 출시한 SPC삼립, 한국을 제외한 KBO리그 글로벌 중계를 진행하는 SOOP 역시 수혜가 기대된다. 크보빵은 출시 사흘만에 판매량 100만개를 달성하며 같은 기간 75만개를 판매했던 '포켓몬빵'의 속도를 앞질렀다. 포켓몬빵은 22년 2월 16년만에 재출시하며 품절 대란을 일으켰고 SPC삼립의 22년 베이커리 사업부 매출은 8,313억원(+22% YoY), 영업이익 617억원(+13% YoY, OPM 7.4%)을 기록했다.

그림1 주요 기업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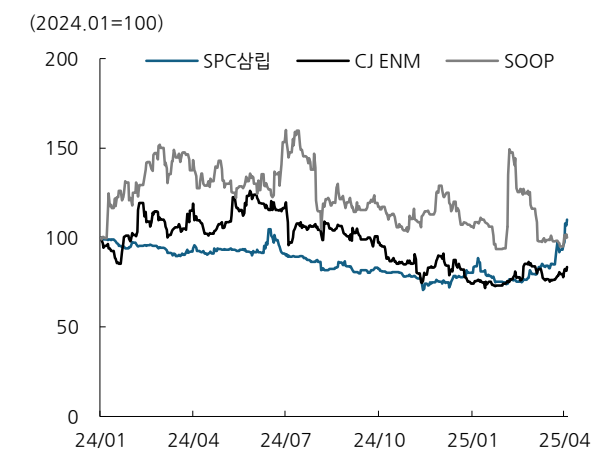


그림2 KBO 개막 후 12일간 55경기 관중 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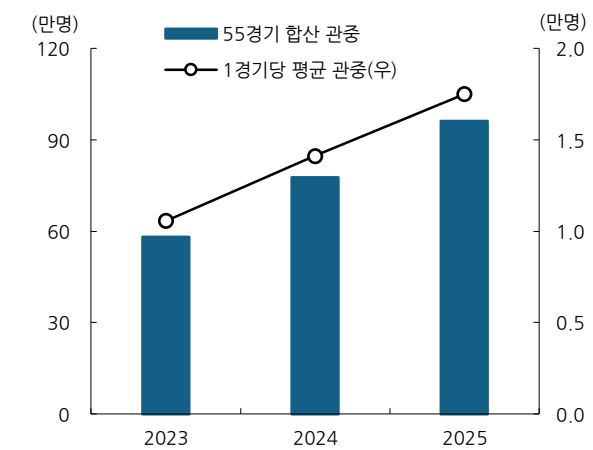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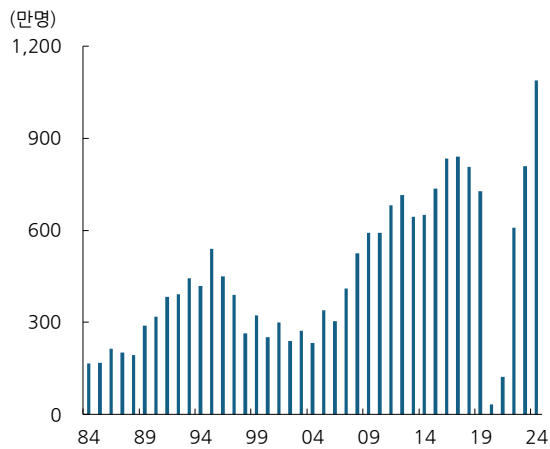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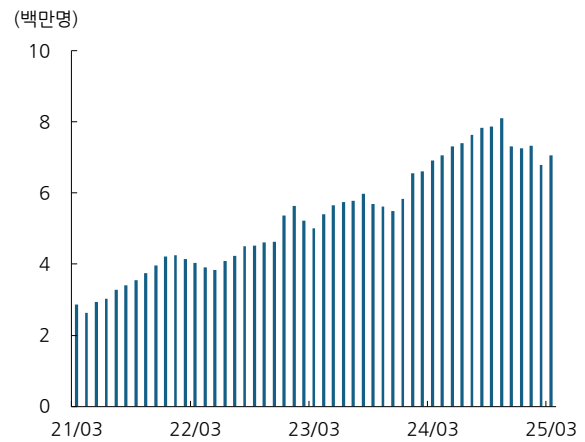


그림3 연도별 KBO 관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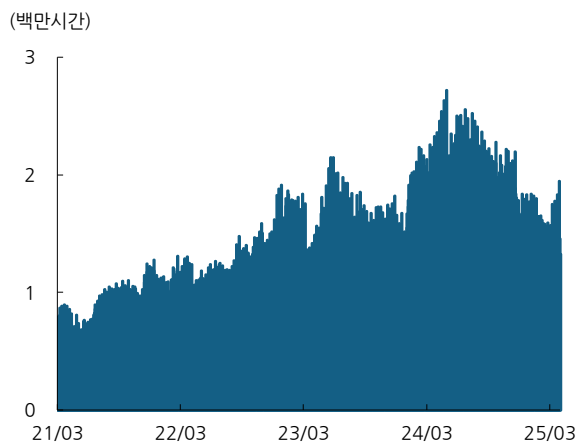
자료: KBO,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티빙 MAU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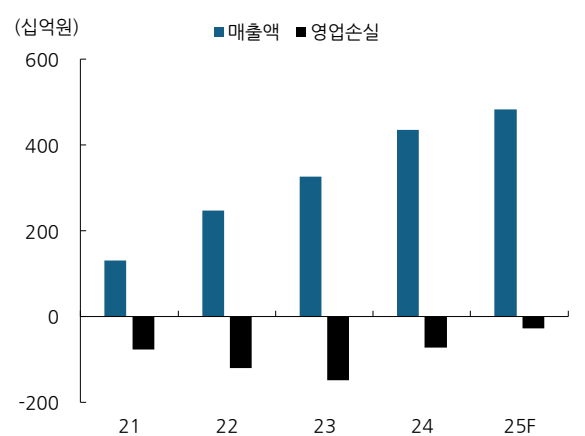
자료: 모바일 인덱스,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티빙 일별 사용 시간 추이



자료: 모바일 인덱스,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티빙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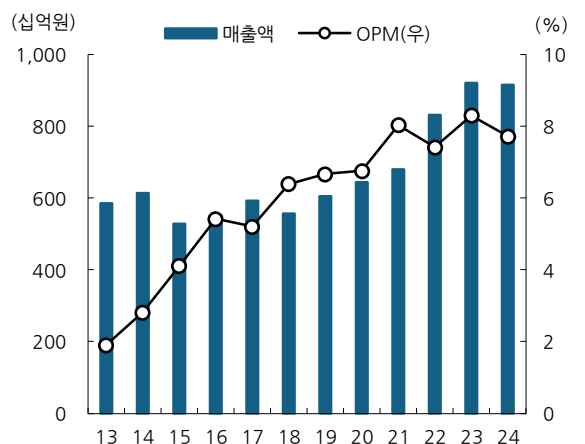
자료: CJ ENM,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7 KBO, 삼립과 '크보빵' 10종 출시



자료: KBO,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SPC삼립의 Bakery 부문 실적 추이



자료: SPC삼립,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의견 및 적용기준 (향후 12개월간 주가 등락 기준)

기업		산업	
매수	+10% 이상의 투자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비중확대	업종별 투자의견은 해당업종 투자비중에 대한 의견
중립	-10% ~ +10%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	중립	
매도	-10% 이하의 추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비중축소	

투자의견 비율

기준일 2025.03.31

매수	중립	매도
98.7%	0.7%	0.7%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